

맘껏 놀며 배우는 참 좋은 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 없이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경험으로 함께 만들어 주세요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어린이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놀 틈이 나더라도 온라인 게임이나 SNS 등에 빠져 참된 놀이를 즐기지 못합니다. 각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교육의 극심한 경쟁을 우려하며 어린이의 놀 권리를 증진하도록 한국에 권고했습니다.

교육현장의 변화 없이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맘껏 놀며 배울 수 있을까요? 어린이, 교사, 학교 및 부모의 참신한 의견과 경험을 <유니세프 놀 권리 지킴이 학교 아이디어 및 실천사례 공모전>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이 모여 <유니세프 놀 권리 지킴이 학교 길라잡이>가 만들어 집니다.

참된 놀이가 어린이와 학교를 바꿉니다. 아래 내용과 동봉한 ‘놀 권리’ 주제 참고자료를 살펴보고 공모전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놀이는...

자유!

어린이가 스스로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정형화된 규칙이나 도구, 시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른은 간섭하지 않고 어린이가 필요로 할 경우에 함께합니다.

도전과 모험!

어린이가 다룰 수 있는 위험에 맞닥뜨려 도전과 모험을 경험합니다.
놀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가늠하며 마음의 힘을 키웁니다.

그 자체로 좋은 것!

마냥 즐겁고 신나는 것.
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마음을 표현하는 법도 배우지요.
하지만 놀이의 효과만을 목적으로 수단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뒷 면 계속 >

유니세프 놀 권리 지킴이 학교 아이디어 및 실천사례 공모전

참여 방법

- 주제** 어린이의 놀 권리를 지켜주는 학교 만들기
- 부문** ① 아이디어 ② 실천사례 (* 놀이 시간, 놀이 활동, 놀이 공간 등)
- 대상** 어린이의 놀 권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또는 팀 / 다수 출품 가능) – 만 18세 미만 어린이, 어른(교사, 부모 등), 학교, 관련 단체 등
- 일정** 접수 2016년 6월 13일 (월) ~ 2016년 8월 12일 (금) 24:00까지
발표 2016년 9월 6일 (화) 유니세프 놀 권리 웹사이트(unicef.or.kr/play) 공지
- 접수** 유니세프 놀 권리 웹사이트에서 '요약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 응모작이 여러 건일 경우, 신청서를 각각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아이디어나 실천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세부 자료(글, 그림, 사진, 영상 등)를 함께 첨부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실천사례의 경우,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 파일명(요약서/세부자료): 이름_아이디어_응모작 제목 / 이름_아이디어_세부자료_응모작 제목
이름_실천사례_응모작 제목 / 이름_실천사례_세부자료_응모작 제목
- 시상** 놀 권리 지킴이 으뜸상 (각 1명/팀) 상금 100만원 및 상장
놀 권리 지킴이 아이디어상 (각 2명/팀) 상금 50만원 및 상장
놀 권리 지킴이 실천사례상 (각 2명/팀) 상금 50만원 및 상장
- * 심사기준
 - 실현 및 확대 가능성, 효과성, 참신성
 - 응모작이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상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사용권을 가집니다
- 문의** play@unicef.or.kr